

기술기준위원회 소개



정종민
천일기술단 부사장
기술기준위원장
geojm@hanmail.net



박재원
대한컨설트란트 이사
기술기준위원회 간사



강대구
나우이엔지 전무
기술기준위원회 간사

본회 기술기준위원회는 안상로 회장님의 출마시 밝히셨던 사단법인으로서의 토기회 사업중 하나로서 각종 기술기준의 제정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토질 및 기초분야는 지반에 건설되는 모든 토목 건축구조물의 근본이 되는 분야로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나 여타의 설계업무와 달리 토질 및 기초분야는 용역대가를 정하기가 쉽지 않고 재료의 특성을 일반화하거나 설계기준을 단일화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여러 설계 또는 시공 감리분야에서 우리 토질 및 기초기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기술기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품셈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통상 용역대가는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기준에 의해 공사비에 대한 건설부문의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공사에서 토질 및 기초분야는 여러 공종중에서 단일공종인 터널분야를 제외하면 지반과 관련된 각종 안정성 검토의 비중이 크며 이는 토목 건축공사에서 해당 구조물의 안전성을 좌

우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그 용역비의 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더무나없이 작은 비중으로 치부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도심지 지하철 개착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가장 중요한 설계공종은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개착 가시설 공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토질 및 기초분야의 용역비는 토류 벽 등 가시설공사비만을 근거로 산정하고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단순 굴착 등 토공사 등이 배제되어 현실적으로 매우 작은 용역비를 할당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약지반 상에 건설되는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지반의 활동파괴를 방지할 안정적인 성토공법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나 단순한 연약지반처리 공사비를 근거로 토질 및 기초분야의 용역비를 산정한다면 우리분야 기술자들의 불이익이 매우 클 것입니다.

따라서 토질 및 기초분야의 설계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보장할 공신력 있는 품셈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설계비 뿐만 아니라 지반조사, 시험에 관한 국내외 각 기관별 품셈을 조사 분석하여 차이점을 발췌하고 개선안 도출하여 각종 설계, 조사업무에 합리적인 용역비 산정기준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설계기준 지침서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질 및 기초분야는 설계재료의 특성이 지반인 만큼 그 설

계법이 여러 학자들의 경험에 기인한 것들이 많아 매우 다양하고 표준화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도로설계편람 등 각종 국내 설계기준도 차이점이 많고 개선될 여지도 많기에 설계기준에 대한 각종 지침서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와 같은 품셈 및 설계기준에 대한 통합 지침서를 우리 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명의로 발간하여 사단법인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며 공신력 있는 자료로 지반기술자뿐만 아니라 여러 건설기술자들의 지반설계 표준 매뉴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